

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일본어와 한국어!

- ‘이 가게 괜찮아요?’는 ‘この店、大丈夫’가 아니야?

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‘괜찮아요’라는 표현을 배우거나 써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넘어졌을 때 ‘괜찮아요?’, 커피밖에 없을 때 ‘커피라도 괜찮아요?’ 등, 일본어로는 보통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‘大丈夫です (か)’로 해석되는 표현으로 기본형은 ‘괜찮다’입니다. 그런데 가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‘괜찮다’가 쓰이는 것을 한 번쯤 듣거나 교과서에서 보고 의아해한 적이 있을 거예요.

가: 내일 데이트 하러 가요.

나: 그럼 이 가게 한번 가 보세요. 정말 [괜찮아요].

가: 네? 괜찮아요???

이런 경우에는 일본어로 ‘大丈夫です’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‘大丈夫だ’로 해석되는 한국어 ‘괜찮다’는 그 어원을 찾아보면 ‘비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나 실속이 없다’라는 의미의 ‘空然(공연)하다’가 ‘괜하다’가 되었고, 여기에 부정표현 ‘-지 아니하다’가 붙은 후 다시 줄어 현재의 ‘괜찮다’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.

[괜하지 아니하다 -> 괜치않다 -> 괜찮다]

어원을 생각하면 ‘괜찮다’는 부정의 뜻에서 ‘무언가 이유나 실속이 있다’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같은 현재의 ‘괜찮다’는 위의 대화나 다음의 대화에서 쓰이는 것처럼 일본어로 ‘良い’라는 뜻으로도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가: 봄은 왔는데 저한테는 봄이 아직이네요.

준수 씨, 주변에 [괜찮은] 사람 없어요?

나: [괜찮은] 사람……. 저는 어때요?

이처럼 한국어 ‘괜찮다’는 ‘(무엇을 하기에) 적합하다 / 좋다’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입니다. ‘괜찮은 가게’는 ‘いい店’, ‘괜찮은 사람’은 ‘いい人’라는 뜻이라는 걸 알겠지요?

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할 때에도 ‘잠시 기다려 주세요’라고 해도 되지만, ‘혹시 [괜찮으시면]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?’처럼 일본어로는 ‘大丈夫でしたら’보다는 ‘よろしければ’로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. 이처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부드럽게 말할 때 ‘괜찮다’를 쓰는 것처럼 요즘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. 싫고 좋음을 ‘좋아요’라고 말하기 보다는 ‘괜찮아요’라고 더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.

가: 같이 차 마시러 갈래요?

나: a. 네, [좋아요].

b. 네, [괜찮아요].

위의 대화에서 ‘좋아요’라고 답하면 개인적으로는 ‘(그 말을) 기다리고 있었어요!’라는 적극적인 느낌이 나고 ‘괜찮아요’라고 답하면 ‘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’ 느낌이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.

이번에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생각할 때의 차이로서 일본어의 ‘大丈夫だ’와 한국어의 ‘괜찮다’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. 일본어와 다르게 한국어로는 ‘大丈夫だ’ 말고 ‘良い’라고도 쓰일 수 있다는 것 이해하셨나요? 참고로 일본어의 ‘大丈夫’를 한국어로 하면 ‘대장부’라고 하는데 ‘몸이 튼튼하고 씩씩한 사내’를 뜻합니다.

이번 내용 괜찮았어요? 시간이 괜찮으면 분위기 괜찮은 카페에서 날씨에 어울리는 괜찮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기사를 읽어 보시는 것도 시간을 보내는 괜찮은

방법인 것 같네요.

박천홍 (도쿄대학교)